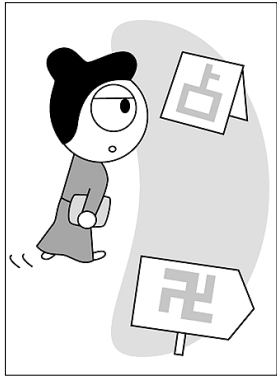




### 占에 의지하면 불자 아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당신의 운세를 알고 싶습니까?’ 요즘 길잡이나 공중파 방송 광고에서 자주 보는 말들이다. 요즘 불안한 사회를 반영이라도 하듯 사주·점보기 등이 확산되고 있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과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법. 하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 조차 사주나 점(占)을 보러 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찰의 스님들에게까지 그러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원사회에서 저급무속종교 기능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 점점화가 첨단정보화 사회인 지금까지도 그 힘을 떨치고 있을까?



현재 한국사회가 중증 사회병리화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점화의 병폐가 사회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는 셈이다. 그럼, 이런 점점화가 극성을 떨치고 있는 이유에는 어디에 있을까?

### 불안 해결 핑계 ‘미신 중독’ 일수 교리·수행으로 마음 다스려야

그간 축적한 경험을 통해서 그 근본 뿌리를 뽑고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점보기 심리의 원인은 첫째, 대부분 한국인의 DNA에 토착적 사머니즘이 원시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구조에 대한 반권위, 반문화·문명적 인격장애증과 상호불신 풍조가 사회 불안심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하고, 교리의 자기적 해석 및 체험적 수행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신앙 의지와 신념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셋째, 일부 종단 스님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일

관성 없는 미비한 교육 등도 한 몫을 한다.

한편 점점화의 문제점은 대부분 사람들의 정신상태에서 비롯된다. 불안한 마음, 통찰력 결여, 약한 자의식 등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좁혀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점보기에 이용당할 위험성과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급기야 사회적응능력까지 저하되는 부작용과 ‘미신 중독증’을 낳게 된다. 정작 점점기가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신들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론적으로 불교계의 점보기 문제점과 사회병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심리상담사들을 많이 양성해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환상적이고 욕구 충족에만 사로잡힌 불자들에게 보다 합리적, 과학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을 일

지시켜줘야 할 것이다. 둘째, 스님 및 불교지도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학문에 접근하기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깊은 학덕과 수행정진을 갖춘 스님들 진건하고, 삶의 질을 높여 불자들이 강한 자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불자들은 일정기간(약3년) 참선(參禪)과 호흡법으로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일관성 있는 기본교리를 배워야 한다. 원호 대사의 화쟁사상 등 불교교리의 정수가 새로운 의식계몽운동으로 꽃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에 의존하려는 사회병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 도락(한국선심리지로명상원장)

### 조계종 중앙총회 ‘본분으로 돌아가자’ 자성 목소리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최대 권력기구로 성장한 중앙총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조계종 중앙총회 총책목임인 일승회(회장 종광)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립, 정쟁의 진원지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 역시 대립의 한축으로 전락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앙총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참회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적인 몸짓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공개적인 참회’

구체화시키는 등 종회 근본 기능 중 하나인 종책생산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승회는 이러한 종책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평가과정을 통해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일승회는 또 “제도적 개선이

회전에 참석한 스님들이나 종책위원회에 참여한 스님들 대부분이 옛 일여회 소속 스님들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승회 내부를 비롯해 다른 종책 모임들 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단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특정한 종책 모임에 속하지 않은 탄우 스님은 “기자회견이 일

### 총림지정 신청기로 동화사, 산중총회서

대구 동화사는 9월 10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림은 강원, 울산, 선원, 영남원을 갖춰야 하고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 스님은 세법 60세 이상, 법랍 45년 이상, 20만거 이상 성만해야 한다. 총림지정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총회에 상정된 후 총회위원 출석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 등 5곳이 있다.

대구=배지선 기자

### “종책생산·종도 참여·시대맞춘 법개정 추진”

#### 일승회 소속 스님들 기자회견 통해 공개담회

자성과 진정된 대의기구로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종광·선광·법안·장적·법경·초격·보경 스님 등 7명의 일승회 회원들은 먼저 자기참회 목소리부터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저희 종책 모임을 포함한 중앙총회의원들은 94년 종단개혁에 안주해서 종도들의 요구를 외면해왔으며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94년 이후 과도한 권한을 가진 중앙총회는 반목과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스님들이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은 ▲종책생산기능 강화 ▲종도들의 참여와 평가 ▲시대상황에 맞는 종회·종법 개정 등.

일승회는 2개월 전부터 매주 한차례씩 세미나를 실시해 온 ‘종책위원회’를 통해 토론과제를 제시하고 연구된 종책을 총무원과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표결방식과 과도한 면책특권에 의한 폐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종단 기구인 각종 위원회마저 종회에서 선출함으로써 종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상황에 맞게 종회·종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즉 기자

승회 전체의 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부의 우선 역할을 하기 보다는 중앙총회 고유 기능 중 하나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책위원장 법안 스님은 “정쟁이 아닌 종책 개발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종책 모임과의 연대뿐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총회위원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구족 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20~22일

태고종 제5회 구족계 수계산림이 9월 20~22일 서울 봉원사 금강계단에서 열린다. 이어 21~22일에는 전법사계 수계산림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구족계 수계산림의 삼사(三師)로는 수진 스님(담양 흥화사)이 전제이사리를, 보경 스님(총무원 부원장)을 감마이사리를, 인공 스님(중앙총회 의장)이 교수이사리를 맡았다.

특도 후 3년이 경과된 사미니와 다른 종단에서 전종한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전법사계 수계산림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전법사들이 수행과 교화에 필요한 기본습의를 습득, 제도적으로 전법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특별히 열리는 행사다. (02)382-7361

박봉영 기자

### 기획국장에 성전스님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9월 9일자로 성전 스님이 임명됐다.

성전 스님은 1989년 사미계, 9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장 사서, 육천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본지 490호 1면 ‘힘든 세상 안심법’을 ‘도선사’로 바로 잡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9월 4~5일, 통합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원대회에서 고문 및 지도위원 7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 임원대회서 새도약 다짐

####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임원 추대식 및 임원대회를 9월 4~5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군 웨르빌 온천호텔에서 개최했다.

회장단 및 지도위원, 소속단체 대표 등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식과 김종서 서울대 교수의 주제특강 ‘한국불교의 중앙신도

회가 나아갈 길’과 우승택 삼성증권 지점장의 사례발표 ‘불교의 미래와 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대식에서는 고문으로 박윤춘 전 환경저 장관,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조영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등 24명이, 지도위원으로 김경남 코엑스 상무이사, 심기섭 강릉시장, 홍기삼 동국대 총장 등 53명이 추대됐다.

김은경 기자

### “백두대간 보호법에 불교계 입장 반영”

#### 관결호 환경부장관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 관결호 환경부장관이 전통사찰에 한해 불교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 장관은 9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안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통사찰에 한해 불교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을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근·현대 사상사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평)는 현대불교신론 후원으로 해방 이전 주요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조계종의 사상적 흐름과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회 조계종 근·현대사상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02)732-4921, 017-378-6075

- 일 시: 2004년 9월 17일(금) 오전 10~오후 6시
- 장 소: 동국대학교 학술관 덕암세미나실

#### 주제, 발표자 및 논평자

선사	발표	논평
경허	고명성(동국대 교수)	해원 스님(동국대 교수)
용성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만공	효탄 스님(동국대 강사)	주경 스님(불교문화사업단)
함암	해거 스님(금강선원 선원장)	윤창화(민족사 대표)
학명	김광석(부천대 교수)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효봉	김방홍(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	김재성(경전연구원 소장)

본지 490호 1면 ‘힘든 세상 안심법’을 ‘도선사’로 바로 잡습니다.

##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곤지암 우리절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우리절 정기기도 · 범회

요일	시간	범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회업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2004년 8월 8일 - 11월 17일(탄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 ◆ 우리절 개산대제

오는 10월 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할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범회를 발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행회장

### 금주익발원

####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모든중생 사랑하사 자식처럼 여기시어  
어리석음 몰아내고 슬기롭게 하옵시고  
모든질병 물리쳐서 건강하게 하옵시는  
비로자나 부모불께 귀명정례 하나이다

모든중생 사랑하사 자식처럼 여기시어  
다감생애 지어온바 열가지업 소멸하고  
열가지의 선업담아 올바른길 가게하는  
비로자나 부모불께 귀명정례 하나이다

모든중생 사랑하사 자식처럼 여기시어  
시방삼세 어디서나 자비손길 펼치시고  
포근하신 가슴으로 중생안아 주옵시는  
비로자나 부모불께 귀명정례 하나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원에서 독특하게 우리절에만(?) 모셔져 있는 [毘盧遮那父母佛 (一名歡喜佛)禮佛文]인데 산승이 지은 것입니다. --- 비구-圓東峰】